

불자 세상보기



석길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BK연구센터 교수

흑백 화합을 이루어낸 인권의 전도사, 용서와 화해의 정치인,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대통령.

95세를 일기로 타계한 넬슨 만델라와 그의 삶을 되짚어내는 연구들이다.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 지배 사회에서 지배당하는 흑인이었다.

“나는 백인 지배에 저항하여 싸웠고, 흑인 지배에 저항하여 싸웠다. 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이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부대중 칼럼



김남일 평창시니어클럽 관장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주 개최지인 평창지역은 지역발전 기대심리가 한껏 고조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노력과, 이를 계기로 지역발전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 모색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곳 평창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그동안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주 소득원이었던 2차 산업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평창에서 대안으로 택한 지역발전 전략은 지속가능·녹색산업으로서 지역청정 농업업과, 문화관광 및 그와 관련된 산업들이다.

‘만델라의 정신’ 실천해야 진정한 추도

그런 이상을 위해 나는 죽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누구의 삶이 되었든, 그것이 사회구조적 폭력에 억압당하고 희생당하지 않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자유민주사회가 그의 목표였다.

그의 삶은 단순히 흑백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어떤 종류의 차별이든, 그 차별로 인해 초래될 삶의 억압에 저항한 인물이었다.

한한 열정이 그의 삶이었다.

그런 그의 삶을 되새기고 추모하려는 세계인의 관심이 그의 추도식에 집중된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고, 또 그의 삶은 세계인의 추모를 받을 만큼 넘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세계의 최강국인 미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와 반미투쟁의 대표자인 쿠바의 지도자 라울 카스트로가, 그 넬슨 만델라의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악수를 나누었다.

화면에 잘 비추어지지 않았지만 일본의 나루히토 왕세자 역시 조문행렬에 동참했다고 한다.

넌 화합의 정치가라는 사실을 알고 참석한 것이었을까? 용서와 화해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할 때야 이루어지는 것인데, 세계가 반성과 참회를 요구해도 여전히 지난날의 과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몰염치한 일본의 역사관을 상징하는 인물일 수밖에 없는 그는, 글썽 어떤 생각으로 조문행렬에 끼었던 것일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의 무미건조한 애도성명. 넬슨 만델라는 자신의 부족말로 ‘마디바(Madiba) 곧 ‘존경받는 어른’으로 불린다.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소통의 삶을 추구했던 마디바 만델라의 삶과 생각에는 별 감흥이 없었기에 그 정도로 끝냈던 것일까?

차별을 넘어, 누구나 맘껏 자신의 삶을 누리고 어우러지며 소통하는 세상! 어떤 이들은 꿈꾸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소통의 기준이, 화해와 용서의 기준이 우리는 모르는 어떤 것일까?

社說

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정책 환영한다

서울시가 역사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통사찰 보존과 역사문화 자원화에 앞장서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서울시는 12월 10일 종로 조계사 안산당에서 ‘서울지역 전통사찰 주지스님 간담회’를 열고 4대 추진과제와 19개 역점사업을 발표했다.

실제 세부 역점사업들을 살펴보면 눈길을 끄는 계획들이 적지 않다. 먼저 시민들과 함께하는 전통 사찰 주간(WEEK)이다.

또한 스타트업 지원 발굴 △사찰 주변 지역을 연계한 도보 코스 개발 △사찰을

식·다례 체험기회 확대 △템플스테이 활성화 △견지동 일대 전통사찰 종합문화공간 구축 △서울시 사찰 고유축제 활성화 등 사업계획은 주목할만 하다.

전통사찰 시설 정비와 전통사찰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와의 협의도 서울시는 약속했다.

중요한 것은 사업이 잘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용두사미’ 정책이 되지 않도록 차근차근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

연말 시상식서 종교색 표출 자제하자

이제 곧 있으면 한해를 마감하는 연말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각종 시상식이 열린다. 주로 공중파 방송에서는 연기자, 코미디언, 가수, 영화배우 등을 시상하는 행사가 많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지각한 행동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종평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중파 방송 3사의 연말 시상식 9개 프로그램에서 전체 수상자 177명 중 34명이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적 발언했다고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

종교적 신념 표출을 자제할 수 있도록 사전 공지를 해달라고 공영방송 KBS, MBC, SBS 3사에 요청했다. 종교평화위는 12월 10일 방송한 공문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매체에 오래라는 사람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미 공인일 것”이라며 “공인이 자신의 종교 신념을 방송이라는 공공의 힘을 빌려 표출하는 것은 공인의 위치를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방송법 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 조항과 제 6조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조항을 근거로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 정서적 감정을 존중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화합에 기여하고 갈등을 조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종교적 신념은 꼭 대중들 앞에 표출시키지 않아도 행동으로 조용히 보여주는게 참 종교인의 자세일 것이다.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Hyeon-daebulgyo, including phone numbers, fax, and website.

Advertisement for '영가천도' (Yungga Cheondo) featuring a large character '命' and text about 4 books for free. Includes a list of 12 item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eonjeonbosa.

Advertisement for '영혼의 세계 (빙의)' (World of Souls) featuring a large character '氷' and text about '영가천도' (Yungga Cheondo) and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How to do Yungga Cheondo!). Includes a list of 10 item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Cheonggwangso.